

한 권의 책에 다양한 작품들 '앤솔로지' 열풍

에스24, 지난해 앤솔러지 330종 출간... 2019년 대비 2.7배

테마소설 시리즈·'국립존엄보장센터' 등 SF소설·에세이 인기

“어린이의 마음으로”, ‘사물들(랜드마크)’, ‘여행하는 소설’, ‘감정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국립존엄보장센터’,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관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이들 작품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앤솔러지다. 특정한 주제 또는 특정한 시대를 기준으로 작품을 하나의 책에 수록하는 것을 앤솔러지라 한다. 원래 ‘꽃다발’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안톨로기아’에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지금은 문학 외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 음악이나 미술 등에서도 앤솔러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권의 책에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수록한 앤솔러지 출간이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터넷 서점 에스24에 따르면 국내 문학 분야 앤솔러지 출간이 증가 추세다.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에세이를 비롯해 소설 앤솔러지 신간이 늘었다. 지난해 에세이 앤솔러지 출간은 330종으로, 2019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설 앤솔러지 출간도 133종으로 2019년 대비 약 1.14배 늘었다.

앤솔러지 출간 흐름에는 신진 작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도 한 이유다. 특히 2012년 이후 등단했거나 첫 소설집이나 장편소설, 시집을 발간한 문인들 가운데 선발된 16명의 ‘2022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스24) 후보들만 봐도 대다수가 앤솔러지를 1회 이상 출간했다.

올해 상반기 출간된 소설 앤솔러지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집은 여행을 모티브로 한 ‘여행하는 소설’을 들 수 있다. 장류진, 윤고은, 기준영, 김금희, 이장욱, 김애란, 천선란작가가 저마다 여행을 매개로 작품을 썼다.

책은 장비교육에서 출간하는 테마 소설 시리즈 다섯 번째 책으로 나왔다. 이전에는 노동을 주제로 한 ‘땀 흘리는 소설’을 비롯해 사랑을 모티브로 한 ‘기슴 뛰는 소설’, 재난에 초점을 맞춘 ‘기억하는 소설’, 생태를 초점화한 ‘숨 쉬는 소설’ 등이 있었다.

여행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펴낸 작품들은 여행에 대한 단상들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장류진의 ‘탐페레 공항’은 여행을 매개로 젊은이의 순수한 꿈을 풀어낸다. 작가는 여행의 흔적은 ‘나’의 꿈의 재발견을 이야기한다.

천선란의 ‘사막으로’는 본다고 믿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초점을 맞췄다. 삶은 절실한 무엇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독자들 취향에 맞춰 장르문학 앤솔러지도 확장되는 추세다. 상반기에는 SF 소설 앤솔러지의 출간과 판매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짧게 수록되는 앤솔러지의 특징이 SF 장르에 대한 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24가 최근 5년간 국내 SF소설 앤솔러지 출간 집계 결과 2017년 3종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3종으로 늘었다. 독자들의 취향이 세분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F 작가 남유하, 원종우, 김이환, 김주영, 김창규의 작품을 한 권에 담은 ‘국립존엄보장센터’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책은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분과 물꼬방 교사들이 기획한 ‘함께 읽는 소설’ 시리즈 첫 권이다. 5편의 소설은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아울러 앤솔러지의 특징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주제를 반영한다는 데 있다. 최근에는 기후나 젠더 등 이슈에 도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여러 작가들의 사유는 독자에게 폭 넓은 시각을 제시한다.

젊은 소설가 8인이 ‘관종’을 모티브로 그린 ‘관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기후 위기를 조명한 4인 작가의 ‘일인용 캡슐’, 산후우울증을 그린 여성 작가 4인의 ‘너 메시스’는 최근의 화두와 맞물린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방울들이 지닌 13가지 색상

광양용강도서관 상주작가 13명 ‘별레는 철학자’ 펴내

“바위를 타고 무지개로 들어간다. 무지개 알갱이들이 손에 잡힌다. 몇 가지 빛깔일까. 무지개 색깔을 헤아리는데 물방울들은 색상 없이 반짝인다. 수풀에 올라 무지개에 몸을 담근다.”

지난해 광양용강도서관 상주작가로 창작 교실을 운영했던 양관수 작가를 비롯해 13명의 문인들이 작품집 ‘별레는 철학자’를 펴냈다.

광양용강도서관은 섬진강 건너 백운산 자락에 있다. 이곳에서 양 작가와 문인들은 산문 창작 교실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

“알밤 같은 글자들이 문쳐서 뽀갓을 만들어 낸다. 글방울들이 무지개 알갱이처럼 빛을 발하는데 물방울들과 달리 색상을 지녔다. 헤아리니 13가지다.”

모두 13 개성들이 만들어 낸 창작문집은 ‘무지개’라고 할 수 있다. 양 작가는 13개 성들이 낸 창작 문집을 각각의 무지개로 명명한다. 이들 무지개들은 제각기 맑고 찬란한 빛을 발한다.

책에는 수필, 동화, 소설, 산문자유곡, 비평 등 각기 다른 장르가 담겨 있다. ▲수필 ‘별레는 철학자’(강향림), ▲동화 ‘싸키사문’(박미애), ‘동희의 세 번째 소원’



(박옥경), ‘소라소리’(이화), ▲소설 ‘슬기로운 노후 생활’(박발진), ‘아버지와 당산나무’(이종태), ▲산문 ‘엄마의 잠기름’(고현순), ‘도깨비바늘’

(위복현), ‘진짜’(윤혜련), ‘나의 천사들’(이빛나해), ‘나의 하루’(황경호), ▲비평 ‘외설이니 예술이니’(양관수)가 실려 있다. 이순아는 “자유글쓰기 프로그램 후기”를 담았다.

양관수 작가는 비평에서 지난 2016년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수상한 한강 소설가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분석했다.

양 작가는 “채식주의자”는 참을 수 없는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남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내보인다”며 “채식주의자 놀이판에서 독자들이 외설인가 예술인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어떤 언어놀이를 했는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중견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빛소리오페라단, 30일 광주아트홀 무료관람,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

‘오페라로 만나는 슬픈 사랑 이야기.’

빛소리 오페라단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6월 첫 공연을 가진 ‘라 트라비아타’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광주아트홀에서 공연된다. 7월 공연은 3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뒤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 파리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디가 작곡한 음악 가운데 유명한 ‘축제의 노래’와 ‘천국처럼 행복한 날’을 이중창으로 들려주며 비올레타의 아리아 ‘아, 그이었던가’, 알프레도의 아리아 ‘그녀를 멀리 떠나서’, 제르몽의 아리아 ‘고향 프로방스의 산과 바다를 생각해 보렴’ 등을 선사한다. 서막과 간주곡 연주는 플루트와 피아노 등이 맡는다.

공연에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성악가들이 참여하며 전문해설가 장면과 장면 사이에 출연, 알기 쉬운 해설을 덧붙인다



빛소리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총감독 및 연출 최석진, 지휘 박미애가 참여하며 비올레타 역 소프라노 양희원, 안니나 역 소프라노 이현숙, 알프레도 역 테너 이원용, 제르몽 역 바리톤 김중우가 호흡을 맞춘다. 해설은 바리톤 양재무가 맡으며 플루트 박지혜, 피아노 천현주, 엘렉톤 장희경(빛소리 오페라단 음악코치)이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아트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생

중계한다.

빛소리오페라단은 오페라 ‘마술피리’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30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으며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800여회의 순회 및 초청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문자예약(010-2228-7040)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증,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다’

전남대 박물관 기증유물 전, 9월23일까지 기획전시실



‘청자삼강연판문유병’



‘전라도 반닫이’

전남대 70년 역사에서 박물관에 기증된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이 기증유물 특별전을 오는 9월 23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기증,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191점 가운데 60 점을 엄선했다. 유산은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다.

한편 전남대박물관은 지난 1957년 최상채 초대 총장의 기증품을 모태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5년 동안 모두 68회의 기증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최상채 초대총장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 19명이 기증한 188점과, 지역민으로는 신동욱 님을 비롯한 지역민 43명이 기증한 2191점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